

# “제주어로 내고향 쇠소깍 전설 들려드립니다”

하효노인회, 제주어말하기팀 꾸러 마을알리기 활동  
효동동과 자매결연 유치면민의날 행사에서도 공연  
표준어 풀이 책자 사전 배포로 제주문화 이해 도와

유네스코가 ‘소멸위기 언어’로 분류한 제주어의 가치를 제주어말하기대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널리 알리며 전도사 역할을 해내는 이들이 있다. 서귀포시 효동동 하효노인회(회장 권기홍) 제주어말하기팀 이르신들이다. 하효노인회에서 제주어말하기팀을 꾸러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15년 쯤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돼 제주를 물론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쇠소깍’ 전설을 제주어로 알려보자는 취지에서 결성해 동 행사 등에서 선보여 왔는데, 호흡도 잘 맞아 그동안 수 차례 제주어말하기 대회에 출전하며 실력을 뽐내고 있다. 2015년 제7회 제주어보존회가 주관한 제주어말하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고, 2018년에는 탐라문화제 제주어말하기 특상, 제주특별자치도기 제주어말하기 한라산상 및 서귀포시 읍면동 대항 제주

어말하기 최우수상 등 3관왕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날 5일에는 2017년 8월 효동동과 자매결연한 전남 장흥군 유치면을 찾아 제30회 유치면민의 날 행사에서 제주어로 마을을 알리기도 했다. 오승언 효동동장과 노인회 임원 등 26명이 찾은 유치면에서 제주어말하기팀이 선보인 공연은 ‘쉐둔마을에서 노려오는 소문 들어뵈디감’이다. ‘삼촌덜 문막덜 편안합디감? 우린양 쉐둔 모슬에서 온 할망들이 우다. 옛날부터 미강농사를 잘 하국양, 미강이 맛종텐 수문난 동네우다게’로 시작된 공연은 하효노인회 김경옥 부회장을 비롯해 안정생, 허신열, 고영화, 강삼진자씨가 이야기꾼, 주인공마님, 머슴아덜, 단뽕애기 역을 맡아 20분동안 풀어나갔다. 하효마을에서 예부터 전해내려오는 ‘쇠소깍의 전설’로, 한 집에서 나고 자란 머슴아덜(머슴 아들)과 단뽕애기(부



서귀포시 효동동 하효노인회 제주어말하기팀이 지난 5일 효동동과 자매결연한 전남 장흥군 유치면을 찾아 유치면민의 날 행사에서 쇠소깍 전설을 제주어로 선보였다. 사진=효동동 제공

자외 이동말)의 비극적인 사랑을 제주어로 실감나게 그려냈는데, 특히 공연 끝부분에선 불쌍한 영혼의 극락왕생을 비는 서우제(무당소리)를 합창해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공연팀은 제주어가 낯선 육지 관광객들을 위해 제주어 대본을 표준어로 풀이한 책자를 사전 배부해 제주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공연 후 권기홍 노인회장은 “이번 공연이 두 자매도시간 향토문화 교류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 제주를 여행할 때는 공연의 배경이 되는 쇠소깍도 꼭 찾아달라”고 말했다. 효동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유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매결연협약을 계기로 유치면민의 날, 서귀포 칠십리축제 등을 상호 방문하는 교류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또 앞으로 서귀포 갈굴, 장흥군 표고버섯과 김 등 두 지역의 특산물 홍보는 물론 지역의 향토문화를 통한 교류로 우정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바닷길 걸어요”

19일 용담레포츠공원 일원서  
용담바닷길 걷기 한마당 진행

제주시 용담2동(동장 오효선)과 용담2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동화)는 오는 19일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 및 용담2동게이트볼장에서 ‘제10회 용담바닷길 걷기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1부 행사로 용담레포츠공원에서 오전 10시30분에 풍물 길트기 행사를 시작으로 레포츠공원을 출발하여 공항둘레길, 해안도로, 어영공원, 수근연대를 거쳐 용담2동 게이트볼장에 도착해 걷기 행사를 마치게 된다.

이어 2부 행사로 용담2동게이트볼장에서 낮 12시부터 스포츠댄스, 플루트 연주, 건강웃음 체조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열정적인 시연이 펼쳐지고, 합창·난타 공연과 함께 부대행사로 자원순환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이동화 위원장은 “열 돌을 맞는 축제인 만큼 지역주민, 정착주민, 관광객 등 남녀노소를 망라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바닷길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올해 행사는 용담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어느 해 보다 풍성하고 다양하게 축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나눔활동 앞장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제주시 일도1동·봉건회

일도1동(동장 김명석)과 집수리 전문 봉사단체인 봉건회(회장 한윤옥)가 지역 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일도1동과 봉건회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지역 내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사진 일도1동은 어려운 이웃에 후원 물품을 전달하던 중 열악한 주거공간

에서 생활하고 있는 해당 가구를 발견하고 봉건회와 협력해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됐다.

봉건회는 2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해당 가구의 폐기물 처리, 전기공사, 도배, 페인트, 싱크대 및 화장실 변기 설치 등 쾌적한 주거공간 마련과 더불어 냉장고를 기부하는 등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한윤옥 회장은 “주변에 도움이 절실한 어려운 이웃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나눔 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동호인 화합의 시간 표선면 귀농·귀촌인 화합 페스티벌 ‘성황’

안덕배드민턴클럽 교류대회

제주도 서·남부 지역 배드민턴 클럽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대회를 통해 동호인들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안덕배드민턴클럽(회장 조방심)은 지난 13일 안덕생활체육관에서 제1회 서·남부 배드민턴 클럽 교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대회에는 안덕배드민턴클럽(회장 조방심), 대정배드민턴클럽(회장 강상철), 중문배드민턴클럽(회장 양덕준), 예래배드민턴클럽(회장 김재운), 모슬포 배드민턴 클럽(회장 강호진) 등이 참가했으며 각 클럽 회원과 서귀포시 서·남부 지역 배드민턴 동호인 100여명이 참여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실력을 겨루고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취지로 마련된 이날 대회에서 각 클럽의 동호인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태윤기자

귀농귀촌연합회 표선지회  
13일 표선면사무소서 행사  
농산물 등 플리마켓도 인기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귀포시 귀농귀촌연합회 표선지회(회장 김대중)는 지난 13일 지역주민 및 귀농귀촌인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표선면사무소에서 ‘표선면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하는 화합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원주민과 이주민의 보이지 않는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기획됐다.

축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수확한 농산물,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예코백, 천연비누 등 다양한 품목들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운영돼 참



서귀포시 귀농귀촌연합회 표선지회는 13일 ‘표선면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하는 화합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주민 및 귀농귀촌인 등 200여명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다.

여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와함께 마을 내에 동아리팀들의 다채로운 공연도 이어져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축제가 끝난 후에는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의 화합을 다지는 식사 자리도 마련됐다. 김대중 회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이 소통하고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Alisa**  
return to wonderland  
알리사, 리턴 투 원더랜드  
미디어아트로 창조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제주에서 세계최고의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쇼가 시작됩니다.  
2019/11/03 개관  
제주도민 50% 할인!

장소: SM 디지털아트뮤지움 (구 빌라드애일호텔 전시관)  
\*도민할인은 12월 13일까지 평일만

한려수교 30주년 기념 전시회